

아동·청소년의 아동권리인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교-

김진숙, 장연진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Assessment of children's rights by children and adolescents -Comparison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im, Jin Sook, Jang, Yeon Jin
Division of Social Welfare, Hanyang Cyber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초, 중, 고등학생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한 인권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2개 구에서 실시된 초, 중, 고등학생 1,065명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영역에서 초, 중, 고등학생의 권리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체로 고등학생의 권리 인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참여권의 영역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권과 보호권에서는 중학생의 권리 인식 수준도 고등학생에 못지않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 권리 당사자 뿐 아니라 이행자를 위한 인권 교육 실행 및 실천적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연령과 지역을 포괄하여 지역별 차이와 발달 단계별 차이를 보다 깊이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아동 권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to improve students' rights based on their age and development stages. To this end, we analyzed a survey that had been carried out with 1,065 students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2 most populated counties in Korea,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their perception with regard to the right to survive, develop, be protected and participate.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high school students' sense of rights was at the lowest in general, while being particularly low in their sense of participation rights.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development rights and protection rights, the level of recogni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were as low as those of high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ed that a proactive effort to guarantee adolescents' participation rights is required, and that education of human rights should be emphasized not only for children but also for their supporters. In the follow-up study, it is requir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development stages and regions by including participants with diverse ages and residential areas.

Key Words : Survival Rights, Development Rights, Protection Rights, Participation Rights, Children's Rights

Received 18 April 2017, Revised 24 May 2017
Accepted 20 June 2017, Published 28 June 2017
Corresponding Author: Yeon Jin Jang
(Hanyang Cyber University)
Email: yjjang@hyc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아동복지 서비스 욕구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문제 및 아동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대표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4년 기준 전체 15,025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정에서 85.9%, 돌봄기관에서 5.1%가 발생하였다[2]. 가정과 아동돌봄기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아동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며[3], 교육 현장으로부터 좌절하고 배제되는 아동 발생 등[4] 대상과 장소에 관계없이 아동 및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부적절함을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아동의 기본 권리에 민감해진 사회분위기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공론화하는 언론의 영향을 반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룬 우리 사회가 아직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충분히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에 비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은 많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과 그를 이행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진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는 네 가지 규범적 틀로 제시함으로써, 아동이 살아가는 환경적 여건과 정책 논의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5]. 또한,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 권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협약이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그 자체가 성인의 분별과 결정의 결과이며, 연령에 따른 차별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6]. UN과 함께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주장하는 유니세프의 아동 권리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도 '아동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 '참여'의 수준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기대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주는 매우 상이하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 많은 청소년 전문가

들은 각 관련법의 연령별 기준을 일관성 있게 통일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아동을 하나의 범주로 함께 취급하기 보다는 아동기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다고 여겨진다. 즉, 아동의 다양성은 흔히 고려되는 문화적 요소뿐만 아니라, 연령 역시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아동 권리는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 권리에 있어 연령 이슈는 두 가지 다른 관점으로 이해된다. 하나는 아동을 성인이 보호해야만 하는 미완의 존재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 스스로 합리적인 자기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전자는 아동을 가족의 한 구성요소 혹은 부모의 권리 수혜자로 보는 관점으로 아동권리의 보호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를 성인의 관점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성인보다 적은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과는 다른 종류의 권리를 요구하고 또 가지고자 한다는 관점으로, 두 집단 간의 권리의 차이는 양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질적인 내용의 차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7]. 즉, 아동의 능력이 발전해감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향성과 지향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8]. 이는 발달적 개념으로 아동의 발달, 능력, 자율성은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따라서 연령의 다양성을 포함하여 아동의 발달별 권리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에 덧붙여, 최근의 아동에 대한 연구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아동기를 사회적 범주로, 아동을 사회적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아동을 '경험하고, 경험을 반영하고, 그것들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가정한다. 따라서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식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권리에 대해 유아기를 제외한 아동 발달단계별로 3집단(초/중/고)의 권리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기 아동을 제외하고 분석한 이유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 발달단계상 유아들은 권리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하며, 유아기 권리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가 제 3자인 부모에 의한 간접적 보고로 다른 대상들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이 인식한 권리 실태는 유엔아동협약의 규준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영역별로 나누어

집단별 권리인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별 권리를 향상시키고,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로 국가를 상정하지만, 가족, 부모, 사회복지기관 등에도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국가는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의 집행과 구체화이며, 이는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과 지방자치단체 단위를 통해 실현된다. 이러한 지자체의 아동권리보장의 노력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지정으로 집약된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주체적 참여와 권리의 인정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으로[9] 먼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에 기반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영역별로 초, 중, 고등학생들 간의 권리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아동권리

2.1.1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권리에 대한 합의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19세기 말 아동은 개입의 대상이며, 선의의 성인에 의해 계획된 복지를 공급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것은 아동은 무능하지만 미래의 시민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 외에는 다른 권리는 없다[10]. 여기에 맞서 1970-80년대의 아동권리운동은 아동의 자율성을 강조해 아동해방운동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1990년대 아동권리협약이 등장한 이래 아동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으로 아동권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아동의 보호권을 강조하는 관점과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은 서로 상반된다. 그러나 이 둘이 보충적일 수 있다고 보는 학자들은 보호받을 권리뿐 아니라 자기결정의 권리가 모두 인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아동의 권리를 연령에 따른 차별 없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는 ‘평등한 권리’와 아동이 갖는 취약성과 발전 능력을 인정하는 ‘특별한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것이다[11].

이러한 개념화를 통해 아동과 권리에 대해 가족주의(paternalism), 자유주의, 복지주의, 해방주의 등 다양한 접근방법이 나타났다. 그 중 복지주의는 아동이 갖고 있는 성장 중인 존재(becoming)와 현재 존재(being)로서의 속성 모두를 인정하며,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제공받을 권리, 참여의 권리 등과 함께 평등의 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아동이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단지 제도의 결여 때문이 아니라 아동 권리 그 자체를 맥락화하고 지역화하지 못했기 때문[3]이라는 관점이 현대 아동복지 영역에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2.1.2 아동의 연령과 아동권리

청소년 인권에 관해 보호관점과 자기결정관점으로 명명되는 두 가지 관점은 청소년 인권 보호에 관해 몇 가지 차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12]. 보호 관점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유아 사망률, 영양실조, 아동학대와 착취 등 청소년 주위의 열악한 사회 환경의 문제를 강조하며, 청소년의 권리보호에 대한 주체를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과 사회에 일차적 책임을 두고 있다. 반면에 자기결정 관점은 청소년에게 자신의 삶에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자신과 관련된 문제와 상황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자율적인 책임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권리의 요체라고 본다.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를 함축적으로 비교하면, 보호 관점은 청소년 자체를 보호하려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결정 관점은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동의 연령이 어릴 경우, 자기결정관점에서 아동 권리를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6세 아동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존권을 제외한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이해하고자 시도한 연구도 있다[13]. 이 연구에서 유아들은 성인에 대한 비판과 항의의 의미를 표현하였으며, 발달수준에 따른 자기조절력을 발휘하여 타인을 배려하였고, 자기결정에 있어서는 존재의 평등성을 주장하고 성인보다 열등하다기 보다는 개인차로 이해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동 나름대로의 해결방법으로 합리적 문제해결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유아라는 위치는 성숙과 미성숙사이의 중층적 입장으로, 혼란(예를 들면, 부모로부터의 강요된 가치의 반영)이 드러나기도 하였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매우 당연한 것이며, 아동의 특권으로 이해했다. 전체적으로 아동이 바라보는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자신의 삶의 모습은 성인이 생각하는 모습보다 능동적이고 조망적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13].

2.1.3 발달단계별 아동권리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권리가 부여된다는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권리 기준이 있다.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발달단계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아동 권리는 공통적으로 건강, 의료, 생존, 발달, 생활보장, 휴식, 여가, 놀이, 문화적 생활, 교육기회, 의사존중과 표현, 비차별, 국적권, 보호권, 도움을 요청할 권리, 양육되고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영유아기에는 건강, 의료, 위생, 놀이,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 권리, 부모에 의한 양육권 등이 강조된다. 아동기에는 발달과 교육을 위한 생활조건, 교육기회, 휴식, 놀이, 문화생활, 교통안전에 대한 권리가 강조되며, 청소년기에는 능력과 자질개발 권리, 교육, 의견표현, 의사반영권 등 시민적 자유권이 강조된다[14].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인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아동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발달단계에 따라 인식된 아동 권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연구는 또 있다. 2016년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교 4,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아동 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동권리지수가 떨어지며 특히 생존권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질병으로 인한 삶의 질 인식에 있어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는 학업 위주의 환경에서 연령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아동·청소년들도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2.2 우리나라 아동인권보장 흐름

뉴스검색 포털사이트인 빅카인즈를 통해 1990년 이후

아동 인권/아동 권리에 대한 뉴스의 추이를 살펴보면 [17], 아동권리협약 비준서를 기탁한 91년에 15건 정도였던 관련 뉴스는 1999년까지 큰 변동이 없다. 그러다가 2002년까지 50여건으로 증가한 후, 2003년에는 143건으로 급증한다. 이때의 이슈는 입양, 이혼아동면접권, 아동학대,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었다. 그 후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아동 권리 교육, 소년사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다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이 되는 2009년에는 498개의 뉴스가 다루어졌다. 이때 새롭게 등장한 아동 권리 관련 이슈는 무상급식이었다.

2013년에는 성북구가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면서 아동 권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고 청소년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16년에는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들과 어린이 권리 교육 등의 내용의 뉴스가 814건에 달했다. 이러한 트렌드는 학대피해아동, 이혼 자녀, 불법체류자 자녀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아동 인권의 관심사가 점차 일반 아동의 성장과 참여로 확대됨을 보여준다. 즉, 아동 인권에 대한 보호 관점에서 자기결정 관점으로 시각이 전환 혹은 확대됨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회의 관심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보장에 대한 학문적 흐름도 두 가지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발전해왔다. 보호 관점에서는 주로 아동학대, 학교폭력, 자살 등과 관련한 사회문제와 맥을 같이 하며 성인들이 보호주체로 나서는 경향이 있으며, 여기에는 2007년부터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에 생활인의 인권 실태가 반영되어 아동복지시설현장 평가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포함된다[18].

다른 측면은 아동 및 청소년이 조직적 활동을 통해 권리를 얻어내는 주체로 나서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아동의 참여적 활동은 청소년 연령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연원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들의 활동은 강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폐지, 직선제 학생회, 전교조 인정 등을 목표로 해 왔다[19]. 이는 인권보다는 교육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측면이 많다. 이후 1998년 11월 3일 '학생인권선언서'를 발표한 이래, 두발제한 반대, 18세 선거연령 인하, 나이스 폐지 등을 주장하는 활동을 하였고, 학생에게만 할인 혜택을 주는 청소년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 내용은 UN이 제시한 4가지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로 정리할 수 있다. 생존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 깨끗한 공기, 물, 안락한 주거지, 적절한 생활수준, 의료혜택 등을 받을 권리를 뜻하며[5], 발달권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도덕적으로 균형있는 성장발달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뜻하며, 보호권은 차별·학대·폭력·유해환경 등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참여권은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의견을 표현하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참여권은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존중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20].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동에게 참여권 보다는 복지권이나 보호권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13]. 2010년 세이브더칠드런이 67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와 심층면접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대한민국 아동의 생존권은 비교적 존중받고 있으나, 참여권과 발달권의 존중은 미약했고, 보호권도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6년 실시된 서울특별시 S구와 K구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이다. 이 두 지역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들이다. 각 구별로 교육복지우선학교를 포함하여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가 고루 포함되도록 유의 할당한 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에서 학교목록 내 계통추출을 통해 학급을 선정하여 학급 전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S구는 초등학생 167명, 중학생 144명, 고등학생 149명이 응답하였고, K구는 초등학생 218명, 중학생 225명, 고등학생 192명이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 두 지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385명, 중학교 2학년 학생 369명,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41명, 총 1,065명의 서울 지역 초, 중, 고등학생들의 응답 내용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3.2 분석방법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해당하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S구와 K구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는 설문지 구성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인권실태조사 등 권리 관련 기존 조사에서 구성한 내용들을 참고하였으며, 최종 설문지가 UNICEF 어린이용, 청소년용 자가 평가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생존권은 가정환경에 있어 결핍수준, 지역사회 안전,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발달권은 학업환경, 여가문화공간,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보호권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경험한 위기와 실제 상황에서의 위기행동, 학대경험이, 참여권에서는 의사표현 자유와 인권협약이해정도가 분석되었다.

조사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응답결과는 초, 중, 고등학교 생별로 나누어 빈도분석 등의 기술통계와 χ^2 검증, one-way Anova 등의 추리통계를 실시하였다. 명목변수로 구성된 가정환경 결핍수준, 인터넷을 통한 위기행동 변수는 χ^2 검증을 실시하여 학교급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보았고, 차이가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Cramer's V 값을 통해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외 변수에 대해서는 one-way Anova 검증을 실시하여 학교급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보았고, 집단간 동질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Scheffe 검증,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unnett 3 검증을 실시하여,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절차는 대표적 통계분석 패키지인 SPSS 23.0을 활용하여 실시되었다.

4. 연구결과

4.1 생존권

가정환경 결핍 인식 수준(예/아니오)을 살펴보면 (<Table 1>),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간에 인식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내 나이와 수준에 맞는 책을 가지고 있다(학교 교재 제외)’,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자전거, 쌍쌍카, 인라인스케이트 등)’,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운동하기, 악기 연주하기, 그림그리기 등),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가 있다(적어도 형제자매 한 명 당 한 개씩은 있으며, 장난감, 보드게임, 블록 등 포함)’, ‘생일파티를 할 기회가 있다’로 나타났

다. 이 항목들은 χ^2 검정 결과 가정환경 결핍 인식 수준에 대해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학교급과 가정환경 결핍 인식 간에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급 간에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항목은 정기적인 여가활동과 관련된 항목이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한 학생들의 응답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일파티 초대와 관련한 항목 역시 초, 중, 고등학교로 갈수록 응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집에는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공간과 적당하게 밝은 조용한 공간이 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그 중 한 켤레는 모든 계절에 신을 수 있다)’와 같은 항목들은 90% 이상의 학생들이 모두 ‘그렇다’고 답한 항목으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간에 인식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다’는 항목은 초, 중, 고등학생 모두 70% 대의 인식률을 보여, 학교급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낮은 인식 수준을 나타내었다.

<Table 1> home environment

(elementary N=385, middle N=369, high N=341)					
contents	Yes		χ^2	p	Cramer's V
	Case	%			
books(except school textbooks)	Ele.	370 96.4	27.597	.000***	.159***
	Mid	330 89.7			
	High	290 85.0			
outdoor activities goods(bicycle, roller-blade, etc.)	Ele.	364 94.8	13.768	.001**	.112**
	Mid	339 91.9			
	High	297 87.1			
routine leisure time	Ele.	358 93.5	135.327	.000***	.352***
	Mid	290 78.6			
	High	195 57.2			
indoor activity goods(included toys, board game, blocks)	Ele.	368 95.8	46.308	.000***	.206***
	Mid	347 94.0			
	High	280 82.4			
comfortable study room	Ele.	350 91.1	1.084	.582	-
	Mid	338 91.6			
	High	305 89.4			
internet service	Ele.	378 98.7	.208	.901	-
	Mid	365 98.9			
	High	336 98.5			
new cloths	Ele.	369 96.1	.901	.637	-
	Mid	357 96.7			
	High	331 97.4			

more than two pairs of shoes	Ele.	374 97.4	.344	.842	-
	Mid	357 96.7			
	High	330 96.8			
inviting friends	Ele.	291 75.8	3.027	.220	-
	Mid	276 74.8			
	High	240 70.4			
birthday party	Ele.	329 85.7	27.304	.000***	.158***
	Mid	293 79.4			
	High	238 69.8			

* p<.05, ** p<.01, *** p<.001

초, 중, 고등학생의 주거환경 인식 수준(4점 척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Table 2>), 먼저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식품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구매가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먹거리 안전성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다. 반면, 야간 거리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초, 중, 고등학생 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도 다른 영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다.

<Table 2> residential environment

[unit: average(SD)]						
contents	Ele.	Mid.	High	F	p	note
safety from crime	3.30 (.735)	3.22 (.668)	3.12 (.690)	6.174	.002**	Ele.>Ele.
safety from car accidents	3.17 (.739)	3.14 (.672)	3.01 (.659)	4.799	.008**	Ele.>High Mid>High
safety at night	2.87 (.899)	2.99 (.792)	2.91 (.747)	2.078	.126	-
accessibility to unsanitary food	2.80 (1.055)	3.21 (.844)	3.04 (.839)	19.217	.000***	Ele.<High Ele.<Mid

* p<.05, ** p<.01, *** p<.001

현재 삶의 만족도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10점 척도),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삶의 만족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사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들의 삶의 질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Table3>).

<Table 3> satisfaction of life

[unit: average(SD)]						
contents	Ele.	Mid	High	F	p	note
satisfaction of life	7.583 (1.944)	7.378 (1.874)	6.775 (1.766)	17.896	.000 ***	Ele.>High Mid>High

* p<.05, ** p<.01, *** p<.001

이상 생존권에 대한 인식 척도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생, 고등학생의 생존권 인식 수준이 뚜렷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현재 삶의 만족도나 여가시간 활용의 측면에서 고등학생의 생존권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야간거리 안전성에 대해 아동·청소년 모두 느끼는 불안감이 높은 편이었다.

4.2. 발달권

학업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4점 척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긍정적인 항목의 경우 모두 초등학교의 평균점수가 높았고, 부정적인 항목의 경우 모두 고등학생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나는 부모님(보호자)이나 선생님의 강요에 의해 원하지 않는 학원에 다닌 적이 있다'는 항목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생의 평균점수는 각각 1.74, 1.75인 반면, 중학생의 평균점수가 1.87로 중학생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항목 중에서 '나는 나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입시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된 수업을 듣는 고등학생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Table 4>).

<Table 4> school environment

[unit: average(SD)]						
contents	Ele.	Mid	High	F	p	note
classroom conditions	3.67 (.620)	3.36 (.636)	3.21 (.615)	50.736	.000 ***	Ele.>Mid Ele.>High Mid>High
contents of classes	3.52 (.674)	3.08 (.779)	2.87 (.769)	74.718	.000 ***	Ele.>Mid Ele.>High Mid>High
information about study and career	3.53 (.708)	3.31 (.642)	3.05 (.703)	43.712	.000 ***	Ele.>Mid Ele.>High Mid>High

information about culture and leisure	3.51 (.737)	3.32 (.656)	3.01 (.721)	46.378	.000 ***	Ele.>Mid Ele.>High Mid>High
abandonment studying by financial problem	1.32 (.702)	1.44 (.788)	1.70 (.843)	22.825	.000 ***	Ele.<High Mid<High
attending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under pressure	1.74 (.996)	1.87 (.967)	1.75 (.835)	2.226	.108	
attending school under pressure or social climate	1.24 (.648)	1.47 (.753)	1.59 (.806)	20.793	.000 ***	Ele.<Mid Ele.<High Mid<High

* p<.05, ** p<.01, *** p<.001

여가문화공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4점 척도),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초등학교생이 여가문화공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청소년들의 여가문화공간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반면, 아동의 경우 놀이공간이나 키즈카페와 같은 형식의 상업적 여가문화공간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여가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청소년에게 놀 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Table 5>).

<Table 5> space for culture and leisure

[unit: average(SD)]						
contents	Ele.	Mid	High	F	p	note
space for culture and leisure	3.34 (.686)	3.02 (.759)	2.79 (.788)	48.650	.000 ***	Ele.>High Ele.>High Mid>High

* p<.05, ** p<.01, *** p<.001

가족 관계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4점 척도), '부모님(보호자)은 학원을 선택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가족관계 인식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부분 고등학생과 초등학교생, 고등학생과 중학생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집에서의 관심과 사랑, 집안의 중요한 일에 대해 가족끼리 상의, 여가활동과 시간에 대한 존중, 진로와 학업 계획에 대한 존중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등학생이 가족 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자녀 본인의 가정 내 의사결정능력과 권리의식은 성장하는 데 비해, 실제 가정 내에서의 분위기는 이에 발맞추어 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Table 6>).

<Table 6> family relationship

[unit: average(SD)]						
contents	Ele.	Mid	High	F	p	note
conversation with parents	3.47 (.696)	3.33 (.670)	3.09 (.713)	27.700	.000 ***	Ele.>Mid Ele.>High
love and concern from family	3.66 (.564)	3.44 (.583)	3.33 (.627)	30.414	.000 ***	Ele.>Mid Ele.>High Mid>High
family decision together	3.13 (.885)	3.11 (.813)	2.96 (.848)	4.524	.011 *	Ele.>High Mid>High
respected my own leisure time and activities	3.40 (.730)	3.25 (.735)	3.09 (.704)	15.571	.000 ***	Ele.>Mid Ele.>High
respected my own career and learning plans	3.55 (.668)	3.38 (.665)	3.39 (.650)	7.863	.000 ***	Ele.>High Ele.>Mid
selection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by myself	3.42 (.801)	3.30 (.799)	3.34 (.653)	2.439	.088	

* p<.05, ** p<.01, *** p<.001

발달권과 관련된 인식 수준은 특히 발달적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가정 내 의사 존중이나 여가문화 공간 충분성, 학업환경 등은 모두 아동, 청소년의 발달수준에 맞게 제공되고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고등학생 뿐 아니라 중학생의 발달권 관련 척도 인식 수준이 초등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응답자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시기부터 적절한 발달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3 보호권

인터넷을 통한 위기 요인 경험 수준을 살펴본 결과(5

점 척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초등학생과 고등학생간의 인식 차이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달간 인터넷(게임 등)을 하느라 일상생활을 못한 적(결석, 지각, 학원가기, 친구만나기 등) 있다’, ‘지난 1달간 카페 등에 어떤 아이에 대한 안 좋은 문자(욕), 사진, 소문 등을 올린 적이 있다’ 항목에서는 중학생의 응답률이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반면, ‘지난 1달간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야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 항목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차이도 유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록 평균점수가 ‘전혀 없다’에 가까운 1점대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나 인터넷 상의 악성 활동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더 많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인터넷 중독이나 인터넷을 통한 학교폭력 등에 빠질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Table 7>).

<Table 7> experience of crisis on cyber space

[unit: average(SD)]						
contents	Ele.	Mid	High	F	p	note
symptoms of internet addiction	1.25 (.655)	1.40 (.801)	1.34 (.724)	3.675	.026	Ele.<Mid
cyber bully behavior	1.08 (.370)	1.20 (.579)	1.12 (.411)	6.643	.001	Ele.<Mid
watching sexual videos by online	1.04 (.282)	1.44 (.883)	1.96 (1.279)	95.972	.000	Ele.<Mid Ele.<High Mid<High

* p<.05, ** p<.01, *** p<.001

실제 위기 행동 경험 수준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나, 그 응답 차이가 미미하여 ‘전혀 없다’로 응답한 사례와 ‘1달 동안 1번’, ‘1달 동안 2-3번’, ‘주 1-2회’, ‘거의 매일’을 포괄하여 ‘예’로 응답한 사례로 구분하였다. 학교급간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지난 1달간 술을 마신 적이 있다’와 ‘지난 1달간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항목이었다. χ^2 검정 결과 음주와 흡연 경험에 대해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음주와 흡연 경험은 학교급과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가장 응답률이 높은 항목은 음주 경험이었고, 지난 1달간 1번 이상 음주 경험을 한 초등학생이 9.4%로 나타나 중, 고등학생 못지않게 초등학생의 음주 경험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출 경험의 경우는 지난 1달간 가출 경험이 1번 이상 있다고 한

응답자가 초등학생 4.9%, 중학생 8.9%, 고등학생 6.2%로 중학생의 가출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그 수치도 10%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외에 수업 결석, 학교 무단 결석 항목에서도 중학생의 경험치가 고등학생보다 높아, 중학생에 대한 위기 행동 예방 노력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Table 8>).

<Table 8> experience of crisis on offline space

contents		Yes		χ^2	p	Cramer's V
		Case	%			
class absence	Ele.	21	5.5	1.791	.408	-
	Mid	15	4.1			
	High	12	3.5			
absence without notice	Ele.	6	1.6	3.628	.163	-
	Mid	14	3.8			
	High	9	2.6			
alcohol drinking	Ele.	36	9.4	9.789	.007**	.095**
	Mid	44	11.9			
	High	58	17.0			
smoking	Ele.	1	0.3	15.860	.000***	.120***
	Mid	11	3.0			
	High	17	5.0			
drug abuse	Ele.	2	0.5	1.820	.402	-
	Mid	2	0.5			
	High	0	0			
runaway from home	Ele.	19	4.9	5.034	.081	-
	Mid	33	8.9			
	High	21	6.2			

* p<.05, ** p<.01, *** p<.001

학대 경험 수준을 살펴본 결과(5점 척도),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인 벌(손, 발, 몽둥이, 막대기, 흉기 등으로)을 받은 경험에 대한 인식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 간 차이도 유의미하였다. 아동에 대한 체벌이 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과 같은 언어적인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대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신체적인 폭력 경험률이 전체 학교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등을 통해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Table 9>).

<Table 9>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unit: average(SD)]

contents	Ele.	Mid	High	F	p	note
physical violence from parents	1.48 (.785)	1.35 (.794)	1.20 (.537)	13.706	.000***	Ele.>Mid Ele.>High Mid>High
verbal violence from parents	1.34 (.735)	1.40 (.906)	1.38 (.785)	2.527	.080	-

* p<.05, ** p<.01, *** p<.001

보호권과 관련된 인식 수준에서는 중학생의 위기 요인과 위기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보다 오히려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가출, 무단결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학생에 대한 보호 요인 강화를 위해 예방적 노력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적 폭력 경험 인식률에서 초등학생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 역시 발달상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건에 있는 아동에게 더 많은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의가 필요하다. 보호권에 대해서는 환경 조성 뿐 아니라 처벌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음주와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제공자에게 엄벌을, 인터넷 환경에 대해서는 청소년 차단 조치 등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4.4 참여권

의사 표현의 자유 인식 수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4점 척도), 전 항목에서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학교와 지역 내에서 참여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고등학생은 학교와 지역, 인터넷 등 전 영역에서 참여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는 데 반해, 실제 보장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해 인식과 보장 사이에 괴리감이 있음을 시사한다. 혹은, 동일한 보장 수준에 대해서 권리 인식 수준이 높아진 고등학생의 경우 더 열악하다고 느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질문한 항목 모두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인식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안에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참여권 인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10>).

<Table 10> expression of opinion

[unit: average(SD)]						
contents	Ele.	Mid	High	F/T	p	note
free expression of opinion in school	3.38 (.680)	3.02 (.761)	2.51 (.803)	122.901	.000 ***	Ele.>Mid Ele.>High Mid>High
freedom of student association and club activities in school	-	3.14 (.752)	2.94 (.725)	3.648	.000 ***	Mid>High
expression of opinion about child facilities in community	2.97 (.937)	2.88 (.771)	2.55 (.721)	24.872	.000 ***	Ele.>High Mid>High
independent children organization in community	-	2.84 (.754)	2.66 (.717)	3.192	.001 **	Mid>High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	2.80 (.791)	2.50 (.805)	4.990	.000 ***	Mid>High
freedom of association in cyber space	-	2.99 (.793)	2.85 (.785)	2.292	.022*	Mid>High

* p<.05, ** p<.01, *** p<.001

*F-test for Ele., Mid and High school students, T-test for Mid and High school students

권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이름만 들어봤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0-80%에 달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관련 제도나 내용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Table 11>).

<Table 11> right related guidelines

[unit: person(%)]							
contents	Ele.	Mid	High	χ^2	p	not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on't know	112 (29.1)	82 (22.3)	85 (24.9)	5.721	.221	-
	know just title	196 (50.9)	195 (53.0)	175 (51.3)			
	know what it is	77 (20.0)	91 (24.7)	81 (23.8)			
	total	385 (100.0)	368 (100.0)	341 (100.0)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don't know	187 (48.6)	126 (34.2)	82 (24.1)	54.834	.000** *	Ele.<Mid Ele.<High Mid<High
	know just title	160 (41.6)	182 (49.5)	180 (52.9)			
	know what it is	38 (9.9)	60 (16.3)	78 (22.9)			
	total	385 (100.0)	368 (100.0)	340 (100.0)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don't know	98 (25.5)	63 (17.1)	65 (19.1)	11.051	.026*	Ele.<Mid
	know just title	199 (51.7)	195 (53.0)	189 (55.4)			
	know what it is	88 (22.9)	110 (29.9)	87 (25.5)			
	total	385 (100.0)	368 (100.0)	341 (100.0)			

* p<.05, ** p<.01, *** p<.001

참여권과 관련된 인식 수준에서는 고등학생의 참여권 관련 권리 보장 수준이 매우 낮게 인식되고 있었다. 고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참여권 보장 노력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권리 관련 제도 인식 수준에서는 ‘이름만 들어봤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참여권 관련 교육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서울이라는 지역을 단위로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영역별로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초, 중,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이들 간의 권리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초, 중, 고등학생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한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존권은 가정환경에 대한 결핍수준, 지역사회안전도,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정환경 결핍수준 인식에서 학교급 간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항목은 정기적인 여가활동 항목이었으며 초, 중, 고등학교로 갈수록 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환경 인식 수준에서는 야간거리 안전성에 대해 초, 중, 고등학생 모두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삶의 만

족도에 대해서는 초, 중, 고등학교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발달권은 학업환경, 여가문화공간,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업환경에서는 대체로 고등학생의 인식과 경험 수준이 긍정적 영역에서는 가장 낮고 부정적 영역에서는 높았지만, “부모님(보호자)이나 선생님의 강요에 의해 원하지 않는 학원에 다닌 적이 있다”는 항목에서는 중학생의 경험률이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여가문화공간 충분성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인식도가 낮았고, 가족관계에서는 진로, 학업계획, 학원 등에 대한 의사존중에서 특히 초등학생보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인식 수준이 낮았다.

보호권은 인터넷을 통해 경험한 위기로인하고 실제 상황에서의 위기행동, 학대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터넷을 통한 위기 요인 경험 수준에서는 다른 권리 유형과 달리 중학생의 경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제 위기 행동 경험 수준에서는 음주와 흡연 경험은 고등학생이, 수업 결석, 학교 무단 결석, 가출 경험에서는 중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학대경험 인식 수준에서는 언어적 폭력은 학교급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신체적 폭력은 초등학생의 경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여권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인권협약 이해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사표현의 자유 인식 수준은 학교와 지역사회, 인터넷 등 전 영역에서 고등학생이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의 인식수준이 가장 낮은 가운데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름만 들어봤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이름만 들어봤다’는 응답과 함께 ‘모른다’는 응답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서울시 아동·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권리 보장 실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대체로 고등학생의 권리 보장 인식과 경험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권과 보호권 영역에서는 고등학생 못지않게 중학생의 권리 보장 인식 및 경험 수준이 낮게 나타나 중학생에 대한 권리 교육 및 권리 보장 환경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참여권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의 응답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은 학교와 지역, 인터넷 등 전 영역에서 참여권 보장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보장 수준에 대해서 권리 인식 수준이 높아진 고등학생

이 더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아동권리인식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연령은 참여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21]. 이에 따라, 향후 발달단계별 혹은 학교급별 차이를 반영하여 아동권리인식에 대한 교육과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2016년에 시행된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생(4, 6학년)과 중학생(2학년)으로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지수 조사[15]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영역에 대한 지표에 대한 아동 권리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이 조사에는 고등학생에 대한 조사 결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권리 보장 경험이 결핍되어 있음에 주목한 바 있다. 중학생은 4대 권리 지수가 전반적으로 초등학생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고, 특히 놀이와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본 조사에서도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영역에서 중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의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학원을 다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수업 결석, 학교 무단 결석, 가출 경험이 높게 나타나는 등 여가시간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정적인 인식과 경험률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중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고 주로 오락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22], 인터넷 사용 외에 지역사회자원 탐방이나 동아리 활동 등 중학생이 건전하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지역사회복지관이나 학교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또, 발달단계상 여러 권리 중에서 참여권의 영역이 확장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의사표현의 자유, 의사결정 및 자기결정의 자유 보장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중학생은 다른 권리에 비해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초등학생과 비교해서도 유의미하게 낮았다[9].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청소년의 참여권을 크게 의사표현의 자유와 의사결정이나 자기결정의 기회 보장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본다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청소년의 참여권은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의사결정이나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 권리와 구분되는 청소년 권리의 영역은 4가지(천부권, 보호권, 의사표명권, 권능부여권)가 있는데, 이 중 의사표명권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입장을 개진 및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23:294]. 즉, 의사표명권은 의사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 반영될 때 실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참여권 확대를 위해서는 실제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가정 내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컨셉트 맵핑 등을 활용한 의사결정과정을 시스템으로 도입하여[24], 청소년의 의사표명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아동 권리이기도 하다[25:152].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인권 관련 교육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주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당사자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권리는 그 권리를 지켜주는 이행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의 이행자가 될 수 있는 위치의 다양한 성인들에게 제공되는 인권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권리는 반드시 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혹은 보장해주고자 하는 상대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며[26], 따라서 아동의 목소리와 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일하는 성인의 목소리 간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모와 교사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27,28,29], 이들에 대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아동을 낳고 기르는 부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보육교사, 교사,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직 교육 내에 인권에 대한 교육 내용이 더욱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의 경우, 2017년부터 필수과목으로 “아동권리와 복지” 과목을 수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표준화된 지침이 세워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인권 교육 내용 구성시에는 인권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장사례 소개,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역할극 등 실제로 인권 보장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 뿐 아

니라 이행자의 인권상황인식(the perception of human rights)을 넘어, 인권감수성(human rights sensitivity)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두 개 지역의 특정 연령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자료를 2차 분석하여 아동권리인식을 파악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인식 수준을 특정 척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연령과 지역을 포괄하여 지역별 차이와 발달 단계별 차이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H. J. Kim, "A Study on the Inhibiting Factors of Case Management in Child Welfare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2, pp. 183-196, 2017.
- [2] J. S. Hwang, J. Y. Lim, S. Y. "Exploratory Study on Child Abuse Reduction Plan through the Big Data Convergence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0, pp. 98-105, 2016.
- [3] E. J. Lee, "Roles of Childcare Teachers toward Child Abuse Prev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8, pp. 81-91, 2016.
- [4] H. J. Kim, M. S. Yang,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Ego-resiliency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School-Dropout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 pp. 23-34, 2017.
- [5] S. K. Park, "Children's Rights and Child Friendly Cities in Selected European Countri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pp. 62-72, 2016.
- [6] M. Liebel, "Children's Rights from Below: Cross-Cultural Perspectives". Palgrave Macmillan, 2012.
- [7] Y. J. Choi, "New Millenium and Tasks for Adolescence Rights and Interests Promotion", National Youth Development Institute, 1999.
- [8] Ladsdown,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Florence, Italy,

- 2005.
- [9] W. S. Kim, "A Study on Children's Rights and Happiness for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Comparative study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2, pp. 485–491, 2017.
- [10] T. W. Simo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Wrongs to the Child"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Vol. 8, No. 1, pp.1 - 13, 2000.
- [11] H. Rodham, "Children under the Law".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 43, No. 4, pp.487 -514, 1973.
- [12] Wailer, Brooks, Wrightsman, "Children's Rights in the United States: In Search of a National Policy". Sage Publication, 1999.
- [13] H. J. Shin, M. K. Oh, "Phenomenological Study of Child Rights: Based on Children's Voices".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 7, No. 2, pp. 71–87, 2009.
- [14] Y. J. Kim, "The Study on Children's Rights: Infants, School Age, and Adolescence".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8.
- [15] Good Neighbors, "Children's Rights in Korean: Present Status and Challenges". *Children's rights issue focus*, Vol. 6, 2016.
- [16] Y. B. Cho, S. H. Lee, J. H. Park, M. H. Park, "KMMQL-AF-based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Life for Survivors of Childhood Cancer by Ag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3, pp. 71–77, 2016.
- [17] BigKinds(News Big Data & Ananalysis) website: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Main.do>
- [18] J. K. Jung, "Acceptance of CRC on the Domestic Law and Practice Arena in Korea's Child Welfare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 14, No. 2, pp.219–244, 2010.
- [19] K. N. Bae, "The History of Adolescents' Rights: Education Resources for Adolescents Right Activists". *GuyngGi-Do: PyungTack Youth Community Center*, 2005.
- [20] Gi-hyeon, Kim, "Trend Analysis on the Issue of Children's Right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 25, No. 4, pp.109–129, 2016.
- [21] Yoon-Na, Kim, "A Study on the Youth Protection and Participation Rights on Age Categories Analysis of Differences in Perception".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Vol. 6, No. 1, pp. 45–69, 2013.
- [22] So-Youn Park, So-Nam Yang,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net Use Time among Adolescents: Focused on Convergent Implic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9, pp. 387–395, 2015.
- [23] Y. J. Choi, "Children's Rights and Youth Righ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7, No. 2, pp. 277–300, 2000.
- [24] S. A. Kwon, Y. M. Jang, "Theoretical study to utility of concept mapping for expected outcome draw of multi-organizations network: Focusing on integrated case management activities of community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5, No. 1, pp. 7–11, 2015
- [25] H. Y. Kim, "Children and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Civic Education in the Area of Schools". *Dankook Law Review*, Vol. 40, No. 1, pp. 119–158, 2016.
- [26] H. J. Cho, "Rights Odyssey". *GyoYangIn*, 2015.
- [27] Kyong-ok Oh, Moon-hee Gang, Myong-sook Kim, "Factors Influencing Self-Confidence in the Teacher's Role on Adolescent Suicid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 pp. 321–328, 2017.
- [28] Soon-Man, Song, Jina Paik, "The Effects of Parents' Neglect i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Focusing i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Identity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0, pp. 327–337, 2016.
- [29] M. S. Oh, "A study on Convergence School Adjustment and Parameter Validation of the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1, pp. 183–188, 2016.

김진숙(Kim, Jin Sook)



- 199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문학사)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03년 8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06년 10월 ~ 현재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아동복지
- E-Mail : jskim@hycu.ac.kr

장연진(Jang, Yeon Jin)



- 1999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 2001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10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가족복지
- E-Mail : yjjang@hycu.ac.kr